

러시아 라흐마니노프의 음악

소프라노 박계 독창회 30일 광주문예회관

요즘에는 연주자 중심이 아닌, 관객들을 배려한 음악회들이 눈에 띈다.

러시아 작곡가 라흐마니노프의 곡만을 묶어 연주회를 갖는 소프라노 박계(조선대) 교수는 관객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다양한 영상과 어우러진 공연을 준비했다. 30일 오후7시30분 광주문예회관 소극장.

라흐마니노프의 성악곡들은 일반인들에게 생소하기 때문에 음악회 프로그램에 간단한 해설을 넣어 보다는 음악과 연관 있는 영상과 사진, 비디오 작품 등을 넣고 자막을 통해 가사를 제공하기로 한 것. 독일에서 컴퓨터음악을 전공한 박진용씨가 함께 준비했다.

지난해 서울문화회관에서 진행한 라흐마니노프의 성악곡 전곡(83곡) 연주회에 참여했던 박씨는 이번 독주회에서 '멜로디' '음악' '종달새의 죽음에 대하여' 등 15곡을 들려준다.

피아노 반주는 '러시아 음악'으로 인연으로 맺어진 이상복씨가 맡는다. 피아니스트였던 라흐마니노프DML 음악감독 피아노 반주 역시 다양한 기교를 느낄 수 있는 점이 매력이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서양화가 송필용 '樂山樂水'展

(오산요수)

오늘부터 7월5일까지 광주신세계 갤러리

서양화가 송필용씨가 '오산요수'(樂山樂水)를 주제로 27일부터 7월5일까지 광주신세계 갤러리에서 개인전을 갖는다.

송씨는 전통 산수화를 현대적인 화풍으로 새롭게 읽어내고 있는 서양화가다. 송씨는 이 전시에서 수년 전부터 시선이 머물고 있는 '물'을 그린 작품을 선보인다. 흐르는 물처럼이라는 명제를 바탕으로 '청음', '생명의 순환' 등 연작 30점을 내놓았다.

이들 작품은 폭포에서 떨어지는 물과 주변 계곡의 실경을 자신만의 독특한 눈으로 해석한 색다른 시각을 보여준다. 장쾌하게 떨어지는 폭포는 생명의 순환과 원시생명을 담고 있다.

송씨가 그린 물의 흐름은 가장 근원적인 형상으로 포착해 생명의 시작과 흐름, 영원한 순환을 이어가겠다.

송씨는 전남대 미술교육과를 졸업한 뒤 13차례 개인전을 가졌으며, 투영·한국현대미술전, 한국현대미술의 전방과 기대 등 단체전에 참여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흐르는 물처럼 금강산수"

삼성미술관 리움 9월10일까지 '마크 로스코 : 송고의 미학'展

추상표현주의의 전설 마크 로스코를 만나다

미술을 전공하는 학생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논문 주제로 마크 로스코(1903~1970)를 생각해 온 한다. '추상표현주의의 대가'라는 닉네임도 쓸 수 있지만, 거대한 캔버스를 수놓는 로스코만의 '색채'에 깊이 빠져들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로스코의 국내 첫 회고전이라 불리는 '마크 로스코 : 송고의 미학'(삼성미술관 리움)은 다소 뒤늦은 감이 있다.

러시아에서 태어난 로스코는 1920년대 뉴욕으로 정소를 옮겨 잭슨 폴록 등과 함께 추상표현주의 1세대를 풍미한 거장. 9월 10일까지 열리는 이번 전시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로스코의 작품을 소장한 리움과 그의 작품을 가장 많이 소장한 워싱턴 내셔널갤러리가 함께 개최했다.

이번 전시는 그의 예술 인생을 압축해서 보여준다. 1920~30년대의 인물·도시·풍경 등을 그린 구상 회화부터 1940년대의 유럽의 초현실주의 영향을 받은 유기적 생물 형태를 그린 작품, 그리고 이 시기를 거쳐 형태가 단순화되고 색채가 부각된 작품 등 전 시기의 작품이 출품됐다. 특히 1920~40년대 그려진 그의 초기작은 로스코의 작품인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구상적 이미지가 강하다. 1940년대의 작품은 구상에서 추상표현주의로 넘어가는 과정에서의 작가의 고민을 엿보게 만든다.

혼돈의 시대 정신성 구현

'모자를 쓴 여자의 초상화'(1932), '다리를 꼬고 앉은 여인'(1935),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과 경제 대공황으로 무거운 기운이 감도는 1940년대 미국의 일면을 그린 '지하철 판타지'(1940)가 대표적인 작품들이다.

이번 전시의 하이라이트는 역시 로스코만의 '색면 추상'. 50년대부터 1970년 2월 25일 자신의 작업실에서 순독을 거어 스스로 목숨을 끊을 때까지 그가 몰두했던 추상표현주의 작품은 '송고미'가 무었인지 피부로 와닿게 해준다.

거대한 캔버스를 뒤덮은 빨강, 주황 등의 '색채'는 마치 비행기 창문에서 내려다보는 구름처럼 아늑하면서도 아찔하게 다가온다. 그의 작품 앞에서 시간을 잊은 채 멍하니 서 있는 관객을 만나는 건 흔한 풍경. 다만 그의 색면 추상 작업을 잔뜩 기대한 관객이라면 '조금 더 많은 작품을 보고 싶은'



'지하철 판타지'(Underground Fantasy·1940년 작) 사진·삼성미술관 리움 제공



'붉은색 띠'(Red Band·1955년 작) 사진·삼성미술관 리움 제공

아쉬움을 숨기지는 못할 듯하다.

어떤 점에서 로스코는 파울 클레와 유사한 지점이 있다. 두 사람 모두 "회화를 음악과 시처럼 표현"하고자 했기 때문. 이번 전시를 공동 기획한 루스 파괴인 내셔널 갤러리 큐레이터는 "로스코의 예술은 혼돈으로 가득 찬 이 세상에서 '우리는 누구인가'를 끊임없이 묻고 있다"며 그를 "물질주의가 광배한 시대에 인간의 한계와 영원성의 문제를 고민한 작가"로 기억한다.

'색면추상' 어울림과 충돌

차가우면서도 세련된 검정색으로 이루어진 리움의 전시공간과 로스코의 색면추상의 어울림과 충돌은 이번 전시의 또 하나의 감상 포인트.

리움에 소장한 고(故) 백남준의 작품 14점('백남준에 대한 경의'전)과 로스코의 작품을 한방에 볼 수 있다는 사실도 놓치지 말자. 리움은 전화 예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것이 다소 귀찮다면 매주 목요일에 찾는 걸 권하고 싶다. 목요일만큼은 예외이기 때문. 문의 02-2014-6555.

/윤동희·미술전문기자 ceohee02@nate.com

시민프로그램 '미술 오케스트라'

전시기획·참여작가 확정

황영성씨 등 30명...광주 미술의 뿌리·미래 제시



2006 광주비엔날레 시민프로그램인 '미술 오케스트라'의 전시기획과 참여작가가 확정됐다. '미술 오케스트라'는 비엔날레 개최자인 광주 미술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살펴보는 전시. 광주비엔날레가 탄생하게된 광주 미술의 저력과 뿌리를 보여주는 프로그램이다.

'미술 오케스트라'라는 말은 다양한 미술세계를 추구하는 광주 지역 작가들의 작품이 오케스트라처럼 한데 어우러져 하모니를 연출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전시는 ▲제1부 '시간이 자라나는 땅'(큐레이터·현수정) ▲제2부 '그들만의 광주? , 우리들의 광주!'(조정란) ▲제3부 '재미와 감동, 그 유쾌한 페스티벌'(이병희·신호윤) 등으로 짜여졌다.

제1부는 광주 현대미술의 1세대 및 서예, 문인화 등을 포함한 근대작가를 통해 미술의 뿌리와 '전통'을 돌아본다. 추사 김정희, 문충사기, 민중미술 등이 등장한다. 참여작가는 소천 손재형, 김천일, 전명숙, 문장호, 김대원, 하진, 홍성민, 고 오승운, 황영성, 신경호, 강연균, 송필용, 조근호, 조희현, 문옥자씨 등 30명.

제2부는 광주 현대미술의 제2세대 위주의 전시로, 광주 미술계의 '의미'를 던진 작가들의 작품으로 구성됐다. 광주 예술의 본류와 세계화에 대한 고민을 작품에 반영하고 있는 작가들의 작품이 선보인다. 참여작가는 모두 14명으로 고광립, 윤일균, 조강현, 마문호, 노정숙, 김진화, 양문기, 양종제씨 등이다. 주로 한국화, 서양화, 판화, 설치조각 작가들이다.

제3부는 현 세대의 개인적인 감성을 반영한 다양한 장르의 작품들로 꾸며진다. 광주현대미술을 살펴보고, 비엔날레와의 접점을 찾는 전시다.

참여작가는 권순찬, 이기성, 성민화, 윤남웅씨 등이다. 입체, 평면, 영상, 비디오, 퍼포먼스, 드로잉 등 전위적인 작품들이 선보인다.

미술 오케스트라 프로그래머 이정훈 호남대학교수는 "미술 오케스트라는 전시 기획자를 발굴한다는 취지를 반영하기 위해 광주·전남에서 활동 중이거나 연구를 둔 미술인, 기획자들을 공모로 선정했다"며 "광주미술의 뿌리와 내일을 살펴보고, 광주와 비엔날레가 어떤 영향을 주고 받았는지를 살펴 볼 수 있는 전시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관객들은 광주 미술의 뿌리와 '전통'을 돌아본다. 추사 김정희, 문충사기, 민중미술 등이 등장한다.

제2부는 광주 현대미술의 제2세대 위주의 전시로, 광주 미술계의 '의미'를 던진 작가들의 작품으로 구성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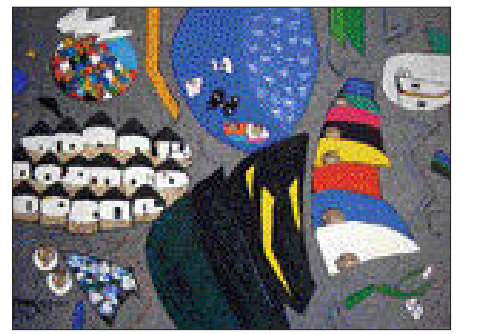
관객들은 광주 미술의 본류와 세계화에 대한 고민을 작품에 반영하고 있는 작가들의 작품이 선보인다. 참여작가는 모두 14명으로 고광립, 윤일균, 조강현, 마문호, 노정숙, 김진화, 양문기, 양종제씨 등이다. 주로 한국화, 서양화, 판화, 설치조각 작가들이다.

제3부는 현 세대의 개인적인 감성을 반영한 다양한 장르의 작품들로 꾸며진다. 광주현대미술을 살펴보고, 비엔날레와의 접점을 찾는 전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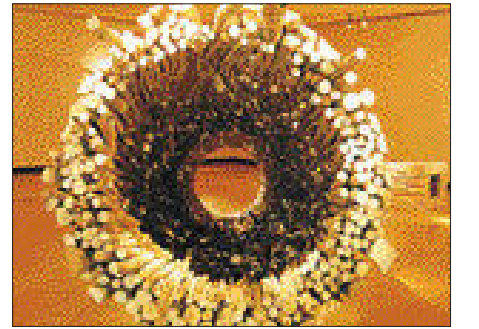
참여작가는 권순찬, 이기성, 성민화, 윤남웅씨 등이다. 입체, 평면, 영상, 비디오, 퍼포먼스, 드로잉 등 전위적인 작품들이 선보인다.

미술 오케스트라 프로그래머 이정훈 호남대학교수는 "미술 오케스트라는 전시 기획자를 발굴한다는 취지를 반영하기 위해 광주·전남에서 활동 중이거나 연구를 둔 미술인, 기획자들을 공모로 선정했다"며 "광주미술의 뿌리와 내일을 살펴보고, 광주와 비엔날레가 어떤 영향을 주고 받았는지를 살펴 볼 수 있는 전시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황영성 작 '우리들의 이야기'



류종열 작 '나나의 꿈'

첨단월계공인중개사

☎(대)1972-4585, 011-604-6215
(송진구 부영사 LC담당 사가리)

금보부동산컨설팅

☎(대)281-8949, 011-602-2233
(복구 우산사 전문초중고등 전문인)

'깜' 부동산서비스

[체계적 가치를 제공해 드립니다]
☎ 011-600-0380

금천공인중개사

☎(대)011-9600-4563

정원공인중개사

☎(대) 227-3031
(대) 011-608-1101

금호공인중개사

☎(대)522-4585, 011-603-3663
(사법대입 시장)

에셋코리아 부동산컨설팅·정기법무부사 법원경매

☎ 222-8446 (법원경매입찰장 열)

첨단중심 상업지역

- 첨단지역권사 예정지 200평
- 부영·호반@정류부근 145평, 135평
- 신가동 상업지역 100평 예정, 음식점 직원 주차유망 280만원

첨단 원동 건물급매

- 대172 건145 원동15개 부동5개 소리 밑 1개 보인1천만 원490만 -대6의 조정

첨단 아남전자 인근 투자지

- 장성, 남평, 진원면 당양 대전권 급매물 다양 실용지역

첨단 주거

- 대172 건145 원동15개 부동5개 소리 밑 1개 보인1천만 원490만 -대6의 조정

첨단 인조지연·생산단지

- 부구 지역 30m도로인근 전·주연 도로전 접근 가능, 창고부동산주거 440평

첨단 2층 3중 주거지역

- 대240평 및 300평 부지 평당 140만 투자 최적

첨단 상업지역

- 대40평 300평 부지 평당 140만 투자 최적

첨단 임대

- 대172 건145 원동15개 부동5개 소리 밑 1개 보인1천만 원490만 -대6의 조정

첨단 주거

- 대172 건145 원동15개 부동5개 소리 밑 1개 보인1천만 원490만 -대6의 조정

첨단 인조지연·생산단지

- 부구 지역 30m도로인근 전·주연 도로전 접근 가능, 창고부동산주거 440평

첨단 주거

- 대172 건145 원동15개 부동5개 소리 밑 1개 보인1천만 원490만 -대6의 조정

첨단 임대

- 대172 건145 원동15개 부동5개 소리 밑 1개 보인1천만 원490만 -대6의 조정

첨단 주거

- 대172 건145 원동15개 부동5개 소리 밑 1개 보인1천만 원490만 -대6의 조정

첨단 임대

- 대172 건145 원동15개 부동5개 소리 밑 1개 보인1천만 원490만 -대6의 조정

첨단 주거

- 대172 건145 원동15개 부동5개 소리 밑 1개 보인1천만 원490만 -대6의 조정

첨단 임대

- 대172 건145 원동15개 부동5개 소리 밑 1개 보인1천만 원490만 -대6의 조정

첨단 주거

- 대172 건145 원동15개 부동5개 소리 밑 1개 보인1천만 원490만 -대6의 조정

첨단 임대

- 대172 건145 원동15개 부동5개 소리 밑 1개 보인1천만 원490만 -대6의 조정

첨단 인조지연·생산단지

- 부구 지역 30m도로인근 전·주연 도로전 접근 가능, 창고부동산주거 440평

첨단 주거

- 대172 건145 원동15개 부동5개 소리 밑 1개 보인1천만 원490만 -대6의 조정

첨단 임대

- 대172 건145 원동15개 부동5개 소리 밑 1개 보인1천만 원490만 -대6의 조정

첨단 주거

- 대172 건145 원동15개 부동5개 소리 밑 1개 보인1천만 원490만 -대6의 조정

첨단 임대

- 대172 건145 원동15개 부동5개 소리 밑 1개 보인1천만 원490만 -대6의 조정

첨단 주거

- 대172 건145 원동15개 부동5개 소리 밑 1개 보인1천만 원490만 -대6의 조정

첨단 임대

- 대172 건145 원동15개 부동5개 소리 밑 1개 보인1천만 원490만 -대6의 조정

첨단 주거

- 대172 건145 원동15개 부동5개 소리 밑 1개 보인1천만 원490만 -대6의 조정

첨단 임대

- 대172 건145 원동15개 부동5개 소리 밑 1개 보인1천만 원490만 -대6의 조정

첨단 인조지연·생산단지

- 부구 지역 30m도로인근 전·주연 도로전 접근 가능, 창고부동산주거 440평

첨단 주거

- 대172 건145 원동15개 부동5개 소리 밑 1개 보인1천만 원490만 -대6의 조정

첨단 임대

- 대172 건145 원동15개 부동5개 소리 밑 1개 보인1천만 원490만 -대6의 조정

첨단 주거

- 대172 건145 원동15개 부동5개 소리 밑 1개 보인1천만 원490만 -대6의 조정

첨단 임대

- 대172 건145 원동15개 부동5개 소리 밑 1개 보인1천만 원490만 -대6의 조정

첨단 주거

- 대172 건145 원동15개 부동5개 소리 밑 1개 보인1천만 원490만 -대6의 조정

첨단 임대

- 대172 건145 원동15개 부동5개 소리 밑 1개 보인1천만 원490만 -대6의 조정

첨단 주거

- 대172 건145 원동15개 부동5개 소리 밑 1개 보인1천만 원490만 -대6의 조정

첨단 임대

- 대172 건145 원동15개 부동5개 소리 밑 1개 보인1천만 원490만 -대6의 조정